

象村 (상촌)

申欽 字敬叔 號象村 宣廟朝登第 仁祖初 首拜吏判 典文衡 官至領相 諡文貞

신흠 자경숙 호상촌 선묘조등제 인조초 수배이판 전문형 관지영상 시문정

→신흠, 자는 경숙, 호는 상촌 이다. 선조 때 과거에 합격하여 인조 초에 이조판서를 지냈다. 대제학을 역임하여 관직이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정 이다.

◎ 작가 소개

신흠(申欽, 1566-1628)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숙(敬叔), 호는 상촌(象村) 또는 현옹, 방옹(放翁)¹⁾이라 한다. 본관은 平山이고 아버지는 개성도사 승서이며 어머니는 좌참찬 송인수의 딸이다. 송인수와 이제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선조18년(1585)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나 1583년 그의 외숙 송응개가 이이(李珥)를 심히 비판하는 탄핵문을 보고 “이이는 사림의 중망을 받는 인물인데 중이라고 한 표현은 지나치다”고 한 말로 인하여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동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겨우 종 9품직인 성균관 학유에 제수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립을 따라 조령전투에 참가하였고 도체찰사 정철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여 그 공로로 지평으로 승진되었다. 1593년 이조정랑으로서 역적 송유진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사복시 첨정으로 가자(加資)되고 1601년 <춘추제씨전>을 합찬한 공으로 가선대부에 승차되고 그 뒤 도승지, 대사성,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즉위년(1608)에는 선조애책문(宣祖哀冊文)을 짓고 한성판윤,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철신으로서 이에 연루되어 대북파에 의해 파직되었다. 1616년 인목대비 폐비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논죄가 되어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1621년에 풀려났다. 1623년 3월 인조의 즉위와 함께 이조판서겸 대제학 우의정에 중용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 세자를 수행하여 전주에 피난하였으며 그 해 9월 영의정에 올랐다가 죽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서는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정치로 백성을 잘살게 하는데 힘쓴 위대한 정치가일 뿐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요 국문학상으로 뛰어난 시조 작가이기도 하다. 조선조 한학 사대가²⁾의 한 사람으로 한문학의 정종(正宗)³⁾ 또는 상월계택(象月谿澤)⁴⁾으로 칭송되고 있다. 특히 시조 30수라는 작품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시조작가 372명 중 15위 이내를 차지함으로써 양에서는 물론 작품의 예술성 면에서도 정철이나 윤선도에 비견할 만하다 하여 시조문학상의 위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효종 2년(1651)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고, 춘천의 도포(道浦)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작품 소개 및 현대어역

一一六 한정가(閑精歌)

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척세라

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 리 뉘 이시리

1) 방옹(放翁): 추방된 늙은이를 말함. 작품으로 방옹시여서(放翁詩餘序)가 있다.

2) 월사 이정구(月沙李廷龜), 상촌 신흠(象村申欽), 계곡 장유(谿谷張維), 택당 이직(澤堂李植)을 말한다.

3) 최고 우두머리를 말함.

4) 한학 사대가의 호를 따서 흔히 월상계택(月象谿澤)이라한다.

밤중만 一片明月이 외 벗인가 하노라.

註 ★ 무쳐세라: 묻혔구나

★ 柴扉(시비): 사립문

★ 一片明月(일편명월): 한 조각 밝은 달

解 산 속 마을에 눈이 오니 돌길이 눈 속에 묻혔구나
사립문을 열지 마라 나를 찾아올 이 누가 있겠는가
밤중에 찾아오는 한 조각 밝은 달 그것이 내 벗인가 하노라

※ 자연 안에서 집의 문을 열지 않아도 달이 벗으로 찾아온다는 한가한 정서가 잘 들어나 일명 한정가(閑精歌)라 불리는 작품이다. 이 시조는 작자가 영창대군과 김제남 등을 제거한 계축화옥에 연루되어 고향인 김포에 몰려가 있다가 춘천에 유배되어 있을 때의 고독한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一一七

功名이 외 무엇고 헌신짝 버스니로다

田園에 도라오니 麋鹿이 벗이로다

百年을 이리지냄도 亦君恩이로다.

註 ★ 버스니로다: 벗은 것이로구나

★ 麋鹿(미록): 고라니와 사슴. 시골을 비유한 말

★ 亦(역): 역시

★ 亦君恩(역군은): 임금님의 은혜, 연군지정을 나타냄

解 공명이란 것이 그 무엇이나 헌신짝 벗은 것과 같구나
자연으로 돌아오니 고라니와 사슴만이 내 벗이로구나
백년을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一一八

草木이 다 埋沒호 제 松竹만 프르렀다

風霜 섰거친 제 네 무슨 일 혼자 프른

두어라 내 性이어나 무려 무슴호리.

註 ★ 埋沒(매몰)호 제: 묻힐 때에

★ 섰거친 제: 섞여칠 때에

★ 프른: 푸르나, '푸른다'의 축약

★ 무슴호리: 무엇하겠는가

解 초목이 다 묻혔을 때에 송죽만 푸르르다
바람과 서리가 섞여칠 때에 네 무슨 일로 혼자 푸르나
두어라 내 본성이거늘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一一九

四皓⁵⁾ | 진짓것가 留候⁶⁾의 奇計⁷⁾로다
眞實로 四皓 | 玆은 一定 아니 나오려니
그려도 아니 냥혀 呂氏客이 되도다.

註 ★진짓것가: 참된 것인가, 奇計(기계): 꾀를 써서 꾸민 계략
★아니 나오려니: 아니 나올 것이다
★그려도: 그래도

解 사호여, 진실인가, 아니로다 유후의 계략이로다
진실로 사호이면 한번 정한 일을 다시 고쳐 할 리 없으니
그래도 아닌 양 하면서 끝내는 여씨의 손님이 되었구나

一二〇

兩生⁷⁾이 외 巍然고 眞實로 高士 | 로다
秦⁸⁾의 일홈 업고 漢⁹⁾의 아나니
엇더타 叔孫通은 오다말라 ㅎ느고.

註 ★高士(고사): 인격이 높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선비, 충절심이 높은 선비
★일홈: 이름
★오다말라: 오라마라

解 양생이 그 누구인가 진정 인격이 높은 선비로다
진나라 시대에 이름 없고 한나라 시대에 아니 났는데
어찌하여 숙손통은 오라말라 하느냐.

一二一

어젯밤 눈 온 後에 들이 조차 비최엿다
눈 後 들 빙치 물그미 그지업다
엇더타 天末浮雲은 오락가락 ㅎ느노.

註 ★들이 조차: 달도 따라

-
- 5) 진나라 때 난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 지내던 네 명의 노인(동원공, 하황공, 기리계, 각리선생). 머리는 물론이요, 수염과 눈썹까지도 희어 사호라 부르게 되었다. 진나라가 유방 한고조에게 멸망당하자 이 사 형제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하여 한고조를 섬길 수 없다 하고 상산이란 산으로 들어가서 은거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하나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편찬(呂氏春秋編纂)에 참여한다. 즉 呂不韋의 식객이 되었다.(정치에 관심이 있어 다시 나옴)
 - 6) 한고조가 태자를 폐하려 하자 장민이 고조가 평소 존경하던 사호를 태자와 함께 나아가 뵈게 하여 고조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고사. 유휴는 장민.
 - 7) 한이 천하를 통일하자 숙손통이 조의를 제정하고자 노(魯)의 유학자 삼천여명을 불렀으나, 양생은 적덕 백 년 후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는 고사(故事).

- ★비취엿다: 비치었다
- ★물그미: 맑음이
- ★비취엿다: 비치었다
- ★天末浮雲(천말부운): 하늘가에 뜬 구름

解 어젯밤 눈 온 후에 달도 따라 비치었다
 눈 온 후에 달이 비치니 맑음이 끝이 없구나
 어찌하여 하늘가에 뜬 구름은 오락가락 하느냐.

一二二

넛 ㄹ에 ㅎ오라바 ㅁ스일 셔잇는다
 無心한 저 고기를 여어 무슨 ㅎ려는다
 아마도 ㅎ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 註 ★히오라바: 백로, 셔잇는다: 서있느냐
 ★여어: 엿보아, 무슨: 무엇
 ★ㅎ물: 같은 물, 같은 조정

解 넛가에 서있는 백로야 그 곳에 무슨일로 서있느냐
 욕심없는 저 고기를 엿보아서 무엇 하려느냐
 아마도 서로 같은 물에 사는 입장이니 아예 잇고 내버려두는 것이 어떨겠느냐.

※이 시조는 당시 고질적인 당쟁의 폐해로 어지러워진 사회상을 풍자한 노래다. 작자가 몸소 치른 대북파와 소북파간의 당쟁을 당쟁이란 표현 대신에 백로와 물고기를 사용함으로서 당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즉, 해오라기는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정적(政敵)을, 물고기는 싸울 뜻이 없는 선량한 선비 혹은 작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노래한 시라고도 할 수 있다.

一二三

헛가래 기나 자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數間茅屋을 자근 줄 웃지 마라
 어즈버 滿山蘿月이 다 내거신가 ㅎ노라.

- 註 ★헛가래: 서까래, 기동: 기둥, 트나: 트거나
 ★數間茅屋(수간모옥): 두 세 칸으로 된 초가집, 자근 줄: 작은 것을
 ★어즈버: 감탄사, 아아!
 ★滿山蘿月(만산라월): 산 가득한 풀덩굴에 비친 달

解 서까래가 길거나 짧거나, 기동이 기울었거나 트였거나
 두 세 칸 짜리 초가집이 작다고 웃지 마라
 아! 풀덩굴 산에 가득한 둥근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一二四

蒼梧山 **히진 후에 二妃는 어되간고**
흠씩 못 주근들 셔름이 엇더튼고
千古에 이 뜻 알 니는 댓습⁸핀가 **호노라.**

註 ★二妃(이비): 순임금의 두 황후, 아황과 여영
★셔름: 설움, 엇더튼고: 어떠하던가
★알 니는: 알 사람은, 댓습핀가: 대숲인가

解 창오산에 해가 진 후에(순임금이 죽은 후에) 두 황후는 어디간 것인가
함께 죽지 못한 설움이 어떠하던가(얼마나 크더냐)
오랜 옛날부터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소상호의 대숲인가 하노라.

一二五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원줄 알건마는
信陵君 무덤 우회 밧가는 줄 못 보신가
百年이 亦草草⁹호니 아니 놀고 엇지⁹리.

註 ★원줄: 잘못된것인 줄
★信陵君(신능군):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 소왕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을 말함.
★우회: 위에, 밧가는 줄: 밭으로 만드는 일을
★亦草草(역초초): 또한 수고롭고 고됨

解 사람이 술이나 먹고 노는 일은 잘못된 것인 줄 나도 알지마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신능군의 무덤 위에도 밭을 만드는 것을 못 보았느냐
한 평생 살기가 또한 수고롭고 고되니 아니 놀고 어찌하겠느냐.

一二六

神仙을 보려 호고 弱水를 건너가니
玉女金童이 다 나와 못논⁹피야
歲星이 어되나 간고 외 날인가 **호노라.**

註 ★弱水(약수): 건너지 못하는 강
★玉女金童(옥녀금동): 선경에 사는 선녀와 금동
★못논⁹피야: 묻는구나
★歲星(세성): 별의 이름, 목성

8) 순임금이 죽은 뒤 두 황후가 애통해하다가 소상호에 빠져 죽자 그 자리에 무늬가 있는 죽(竹)이 자라났다 하여 이를 소상반죽이라 한다.

解 신선을 보려고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니
선경에 사는 선녀와 금동이 다 나와 묻는구나
목성이 어디쯤 왔는지 그 날인가 하노라.

一二七

열일사 저 鵬鳥 | 야 웃노라 저 鵬鳥 | 야
九萬里長天에 므스 일로 올라간다
굴형에 뱀새 참새는 못내 즐겨 흐느다.

註 ★열일사: 어리석도다, 鵬鳥(봉조): 큰 새
★九萬里長天(구만리장천): 높고 넓은 광활한 하늘
★굴형: 구렁, 골목의 옛말, 뱀새: 뱀새

解 어리석도다, 저 봉조야 우는구나 저 봉조야
높고 넓은 하늘에 무슨 일로 올라갔느냐
봉조가 없는 외진 곳의 뱀새와 참새는 그지없이 즐기는 구나.

一二八

날을 못지마라 前身이 柱下史⁹⁾ | 회
靑牛로 나간 後에 몇 回¹⁰⁾ 도라온다
世間이 하 多事¹⁰⁾ 하니 온동만동 흐여라.

註 ★柱下史(주하사): 벼슬이름, 주나라의 역인, 노자(老子)를 이름.
★靑牛(청우): 노자가 서유(西遊)할 때 탄 소
★多事(다사)하니: 하는일이 많으니, 온동만동: 올지말지

解 나를 묻지 말아라 전에 이 몸은 주하사 이로다
노자가 소를 타고 나간 후에 몇 해 만에 돌아왔느냐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 올지 말지 하는구나.

一二九

是非 업슨 後 | 라 榮辱이 다 不關라
琴書를 호른 後에 이몸이 閑暇¹⁰⁾ 하다
白鷗 | 야 機事¹⁰⁾를 니즘은 너와 내가 흐노라.

註 ★是非(시비) 업슨 後(후) | : 세속을 떠난 후, 榮辱(영욕): 영예로움과 치욕

9) 벼슬이름, 전주(殿柱)의 밑에서 집무하기 때문에 이르는 것이며 주나라 장서실(藏書室)의 역인(譯人). 노자(老子)가 이 역에 있었으므로 노자(老子)를 이름.

10) 機心: 옛날 뱃사공이 혼자 있을 때 백구가 친구가 되어 함께 놀았으나 뱃사공이 백구를 잡으려는 욕심이 생겨 백구를 잡으려고 하자 백구가 도망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욕심을 나타냄.

★琴書(금서): 거문고와 서책, 흐튼 後(후)에: 버린 후에

★機事(기사): 사람의 욕심, 니즘은: 잊음은

解 세속을 떠난 후이니 영예로움과 치욕은 관계치 않는구나
거문고와 서책을 버린 후에 이몸이 한가하기 그지 없구나
백구야, 인간의 욕심을 잊음은 너와 나인가 하노라.

一三〇

아침은 비 오더니 느지니는 바람이로다

千里萬里 入길해 風雨는 무스 일고

두어라 黃昏이 머릿거니 수여간들 엇드리.

註 ★오더니: 오더니, 느지니는: 늦어서는, 길해: 길에

★黃昏(황혼):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사람의 쇠잔한 모습을 비유함

★수여: 쉬어

解 아침에는 비가 오더니 늦어서는 바람이 부는 구나
천리만리 머나먼 길에 비바람이 무슨일인가
두어라, 아직도 황혼이 되기까지는 멀었으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一三一

내 가슴 해친 피로 님의 양즈 그려내여

高堂素壁에 거러두고 보고지고

뉘라셔 離別을 삼겨 사름 죽게 하느고.

註 ★양즈: 모양

★高堂素壁(고당소벽): 높은집 흰 벽

★뉘라셔:누가,누구라셔, 삼겨:생기게 하여

解 내 가슴을 해친 피로 님의 모양을 그려내여서
높은 집 흰 벽에 걸어두고 보고 싶구나
누가 이별을 생기게 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가.

一三二

寒食 비온 밤의 봄빛치 다 퍼졌다

無情호 花柳도 새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느고.

註 ★寒食(한식): 명절의 하나, 불씨가 소중했던 때 일년에 한 번 불씨를 갈았던 날로 이날은 찬밥을 먹었다 하여 寒食(한식)이라 함

★花柳(화류):꽃과 버들, 피엿거든:피엿거든, 피엿건만

★엇더타: 어찌하여, 어째서

解 한식날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구나
무정한 꽃과 버들도 때를 알아차리고 피었건만
어찌하여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 이 노래는 작자가 중국 진나라의 현인인 개자추를 사모하여 지은 노래이다.

一三三

어젯밤 비운後에 石榴꽃이 다 피었다
芙蓉塘畔에 水晶簾을 거더두고
늘 向흔 기쁜 시름을 못내 풀러 ㅎ노랴.

註 ★芙蓉塘畔(부용당반): 연꽃이 핀 못가
★水晶簾(수정림): 수정을 꿰어 만든 발
★풀러: 풀어

解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연꽃이 핀 못가에 수정을 꿰어 만든 발을 걸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어 하느냐.

一三四

窓밖의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蕙蘭蹊徑에 落葉은 므스 일고
어즈버 有限흔 肝腸이 다 그출가 ㅎ노라.

註 ★워석버석: 낙엽 밟는 소리
★蕙蘭蹊徑(혜난혜경): 난초 우거진 좁은 지름길
★肝腸(간장): 마음, 애간장
★그출가: 끊어질까

解 창 밖의 낙엽 밟는 소리에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난초 우거진 지름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아,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一三五

銀釭에 불붙고 獸爐에 쫄이 진지
芙蓉 기쁜 帳에 혼자 끼야 안자 시니
엇더타 恨스흔 저 更點아 줌못드러 ㅎ노라.

註 ★銀釭(은강): 은으로 만든 등잔,
★獸爐(수려): 짐승모양의 향로, 芙蓉(부용): 연꽃

★현스훈: 야단스러운, 更點(경점): 시각을 알리는 소리

解 은으로 만든 등잔에 불이 붙고 짐승모양의 향로에 향을 피고
연꽃 깊은 장에 혼자 깨어 앉아 있으니
어찌하여 야단스러운 저 시각을 알리는 소리에 잠 못 들어 하노라.

一三六

봄이 왔다 訶되 消息을 모르더니
넋 𑖦에 푸른 버들 네 먼저 아도피야
어즈버 人間離別을 또 잊지 訶느다.

註 ★먼저: 먼저

★아도피야: 아는구나

★ 訶느다: 하느냐

解 봄이 왔다 하나 소식을 모르더니
넋가의 푸른 버들 네가 먼저 아는구나
아, 사람사이의 이별을 또 어찌 하느냐.

一三七

人間을 켜나 니는 이 몸이 閑暇訶다
簑衣를 니의치고 釣磯로 올라가니
운노라 太公望은 나 간줄을 몰래라.

註 ★켜나 니는: 떠난 사람은

★簑衣(사의): 도롱이, 니의치고: 여미어입고

★釣磯(조기): 낚시터

★운노라: 웃노라, 太公望(태공망): 강태공

解 인간을 떠난 이는 이 몸이 한가하다
도롱이를 여미어 입고 낚시터로 올라가니
웃노라, 강태공은 내가 간 줄을 모르는 구나.

一三八

南山 기른 골에 두어 이랑 내려두고
三神山¹¹⁾不死藥을 다 키야 심근 말이
어즈버 滄海桑田을 혼자 불가 訶노라.

註 ★내려두고: 일구어두고

★三神山不死藥(삼신산불사약):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영약, 심근말이: 심으니

11)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말함.

★滄海桑田(창해상전): 푸른 바다가 뽕밭으로 변함, 세상의 변화가 심함을 이르는 말

解 남산 깊은 골에 두어 이랑 밭을 일구어 두고

삼신산에서 자생하는 죽지 않는 영약을 다 캐어다 심으니

아,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혼자 볼까 하노라.(영약을 먹고 오래 살겠다.)

一三九

술이 몇가지오 淸酒와 濁酒 | 로다

먹고 醉홀선정 淸濁이 관계하랴

달 밝고 風淸한 밤이여니 아니 썬들 엇드리.

註 ★淸酒(청주): 맑은 술, 濁酒(탁주):막걸리

★醉(취)홀선정: 취할망정

★風淸(풍청)한 :바람이 맑은, 밤이여니: 밤이기에

解 사람이 마시는 술이 몇 가지오, 청주와 탁주로다

먹고 취할망정 취하는 데는 맑고 탁함이 관계하겠느냐

달 밝고 바람이 맑은 밤이니 취한 술이 아니 깰들 어떠하리.

一四〇

반되 불이 되다 반되지 켜 불일소나

돌히 별이 되다 돌이지 켜 별일소나

불인가 별인가 하니 그를 몰라 하노라.

註 ★반되: 반디,개똥벌레

★돌히: 돌이

解 반디는 불이 된다지만 반디지 왜 불이나

돌은 별이 된다지만 돌이지 왜 별이나

불인가 별인가 하니 그것을 몰라 하는구나.

一四一

곳지고 속님나니 時節도 變하거다

플소개 푸른 버레 나뉘되야 느다 느다

위라셔 造化를 자바 千變萬化 하논고.

註 ★變(변)하거다: 변하였도다

★버레: 벌레, 느다느다: 날아다닌다

★造化(조화): 대자연의 이치, 만들어 기름

★千變萬化(천변만화):변화가 무궁함, 한없이 변화함

解 꽃 지고 속잎이나니 시절도 변화였도다
풀 속의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니는구나
누가 이 대자연의 이치를 잡아 한없이 변화했는가.

一四二

느저 날서이고 太古人적을 못 보완자
結繩을 罷한 後에 世故도 하도할사
출하로 酒鄉에 드리 이 世界를 니즈리라.

註 ★느저 날서이고: 늦게서야 태어났구나, 못 보완자: 못 보았구나
★結繩(결승): 결승으로 문자를 대신하던 시대, 유사시대 이후
★世故(세고): 세상의 번거로운 일, 출하로: 차라리

解 늦게서야 태어나 태고의 시절을 못 보았구나
결승을 마친 후에(유사시 이후에)는 세상의 번거로운 일이 많기도 많구나
차라리 주향에 들어 이 세계를 잊으리라.

※이 시조는 번잡스런 세상사를 잊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一四三

樽中에 술이 있고 座上에 손이 ㄴ득
大兒孔文學를 고쳐 어더 볼찌이고
어즈버 世間餘子를 닐러 므슴하리.

註 ★樽中(준중):술통 속, 座上(좌상): 좌석
★大兒孔文學(대아공문거): 후한 때 사람으로 손님 접대를 잘함
★고쳐 어더 볼찌이고: 다시 찾아 볼 것인가
★世間餘子(세간여자): 세상의 나머지 사람, 서민
★닐러: 말해서, 므슴하리: 무엇하리

解 술독에 술이 있고 좌석에는 손님이 많기도 하다마는
그 중에 대아공문거같은 인물을 어찌 다시 찾아보겠는고
아, 우리 같은 세상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리오.

一四四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사
닐러다 못닐러 불려나 푸듯든가
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註 ★삼긴: 지은, 하도할사: 많기도 많구나
★닐러다 못닐러: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푸듯든가: 풀었던 말인가

解 노래를 처음 지은 사람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노래를 불러 마음에 맺힌 한을 풀었던 말이나
정말로 노래를 불러 풀릴 수 있다면 나도 불러 보리라.

※ 이 시조는 지금까지 부른 시조에 대한 시인 자신의 정감을 나타내는 시이다.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一四五

步虛子 **못** 後에 與民樂¹²⁾을 니어 ㅎ니
羽調 界面調¹³⁾에 客興이 더어세라
아히야 商聲을 마라 ㅎ 저물가 ㅎ노라.

註 ★步虛子(보허자): 唐(당)의 악곡명, 우리 나라의 呈才(정재)때 부르던 唱詞(창사)의 이름
★與民樂(여민락): 조선 전기에 제작된 아악
★羽調(우조): 현행 판소리에서 쓰이는 악조명, 담담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며 흔히 느린 진양조 장단에 맞춰 부른다.
★界面調(계면조): 전통음악 선율의 하나, 슬픈 느낌을 준다.
★商聲(상성): 상의 음을 주음으로 하는 음계, 애처로운 곡조

解 보허자 마친 후에 여민락을 이어 창을하니
우조 계면조에 손님들의 흥이 더하는구나
아이야, 상성을 말아라 해 저물까 하노라.

※ 이 시조는 자신의 시조를 음악적 의미에서 본 시조이다.

12) 세종27년 왕명에 따라 정인지 등이 지어 올린 용비어천가 125장 가운데 첫 장과 2-4장 및 종장을 가사로 엮어 부르던 곡조였으나 지금은 순 기악곡으로만 연주한다. 관명으로 는 승평만세지곡, 현명으로는 오운개서도라 한다.

13) 해동가요에서는 계면조를 ‘처참하게 흐느낀다’ 라고 했다. 춘향가 중 ‘이별가’, ‘옥중가’, 심청가 중 ‘추월만정’, 흥보가 중 ‘가난타령’, 적벽가 중 ‘군사설움타령’등에 쓰인다.